

광양·나주 이어 여수까지 유치 추진 전남은 지금 '아웃렛 전쟁터'

업체들 "입점 쉬운 황금알 사업" 지자체 "관광객·세수 확보 기회" 지역중소·전통시장과 상생해야

여수에 대한 아웃렛 입점설이 불거지면서 전남이 국내외 유통기업들의 '아웃렛 전쟁터'가 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박람회장을 장기 임대 활용하기로 결정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내 2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선호 업종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다.

응역 결과 박람회장 국제관을 장기 임대하게 되면 '명품 아웃렛'과 '키즈 테마파크' 등 2가지 업종에 기업들이 가장 많은 투자를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여수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민간단체인 박람회사후활용추진위원회 등에 보고하고 정부에 응역 결과를 토대로 사후활용계획 변경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박람회장 명품 아웃렛 매장은 국내외 유명업체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여수·여천상인연합회는 "아웃렛이 입점하게 되면 여수·여천 지역 3000여 소형 매장들은 초도화될 것"이라며 생존권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람회장 명품 아웃렛 매장은 오는 11월께 나올 예정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박람회장 매각 타당성 응역 결과가 장기 임대로 결정될 경우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전남에는 이미 LG(구 LG패션)가 광양에 프리미엄 아웃렛 입점을 결정했고 신세계사이먼이 광주와 나주혁신도시 중간지점인 나주시 노안면에 입지를 정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남이 아웃렛 전쟁터가 된 것은 지자체의 제한이 심한 대형마트와는 달리 입점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유통업체 역시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인식하면서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관광객 유치와 세수 수입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아웃렛 유치에 적극적인 점도 작용했다.

이들 사업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관광의 한계로 지적돼 왔던 '관광형 쇼핑시설' 부재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용도변경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 정부 부처와의 조율, 일부 주민 반발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또 초대형 아웃렛이 들어서면 지역 유통업체의 불행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동안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잇단 진출로 골목상권이 위축되는 예를 수없이 겪어왔다.

이 때문에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진 단계서부터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이외에도 대형 아웃렛이 여러 도시에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광역행정 측면에서 전남도가 교통정리에 나설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광행구 전남발전연구원 생태·문화연구실장은 "전남 주요도시가 아웃렛 입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적합한 입지를 선택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상생형 쇼핑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성장동력 잃은 광주... 쇠퇴하는 전남·전북



석별의 정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광주시 서구 광전동 고속버스터미널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귀경객들로 붐볐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아들이 서울행 버스에 오르려하자 한 어머니가 포옹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고향의 정 듬뿍 안고 일터로

연휴 길어 귀경길 소통 원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광주·전남 주요 귀경길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비교적 원활한 소통을 보였다. 광주광전동터미널과 광주역 등은 귀경객들의 행렬이 분산되면서 지난 설 명절 때보다 한산한 분위기였다.

10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귀경길(승용차·요금소 기준) 예상 소요 시간은 광주→서울 4시간,

목포→서울 5시간, 부산→서울 5시간 30분 등이다.

고속도로는 귀경차량이 오전 한때 몰리면서 일부 구간에 지체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이날 오후 들면서 대부분의 구간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어져 큰 혼잡은 없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날 48만대의 차량이 서울로 돌아온 데 이어, 이날도 45만대가 귀경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국도와 주요 진·출입로에서도 지·정체 현상은 빚어지지 않았다.

■산업연구원, 지역경제 분석 인구·소득 모두 정체·감소

전남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쇠퇴했으며, 성장지역이었던 광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이 16개 시·도의 소득과 인구 추이를 비교 평가해 지난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성장·정체·쇠퇴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광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거점도시의 경제가 갈수록 쇠퇴하거나 정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인천 및 충청권은 성장하고 있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행정복합도시 조성 등 수도권과 충청권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시킴으로써 나머지 지역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와 전남·북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연평균 소득과 인구 증가율이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도는 곳을 성장지역으로, 둘 다 밑도는 곳을 쇠퇴지역으로 분류했다. 인구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넘지만 소득 증가율이 평균에 못 미치면 정체지역으로, 그 반대는 잠재적 성장지역으로 봤다. 1990년부터 2012년을 1기(1990~1997년)와 2기(1998~2012년)로 나눠 살펴본 결과 전남, 전북, 서울, 부산, 강원, 제주를 두 기간 모두 쇠퇴지역에 속했다. 1기 때 정체지역과 성장지역으로 각각 분류된 대구와 경남은 2기 때 쇠퇴지역으로 편입됐다.

광주, 대전은 성장지역에서 정체지역으로 밀려났다. 광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도시권에는 고학력의 생산가능인구가 몰려 있지만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전남, 전북, 강원 등의 경제가 쇠퇴한 것은 약한 산업 및 교육기반 탓에 생산가능인구가 인근 광역시나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옮겼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반면 경기, 인천은 1·2기 모두 성장지역에 속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매곡항의 슬픈 추석

10명 실종자 가족 한가위 눈물 ▶6면

▶무등기 사회인야구 13일 개막

무등·광일리그 32개 팀 일전 ▶18면

2015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2014. 9. 6(토)~9.18(목)
입학문의 062)605-1114, 1027
광신대학교

한울 韓律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바로 오늘이어야 하니까

갈색 솔잎 에너지로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한울 율러원액

당신이 가장 예쁜 날은 항상 과거에만 있나요?
기존 대비 3.8배* 농축된 갈색 솔잎 추출물을 담아 세로위진 한울 율러원액을 만나보세요!
갈색 솔잎 추출물이 무더진 피부를 깨끗하고 피부 속 깊이 촉촉한 생기를 전달하니까
맑고 생생한 피부를 가진 오늘이 당신의 가장 예쁜 날이에요.

*비교 실험: 연휴 길어 귀경길 소통 원활 90% 이상

▶ 맑고 생생한 오늘피부를 위한 5가지 피부 개선효과		
1. 피부가 촉촉하게 재워지는 느낌이다	100%	비수분 함량도 증가했다
2. 피부가 다져져 탄력 있어 보이는 느낌이다	99%	비 탄력도 증가했다
3. 피부가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이다	98%	비 부드러움도 증가했다
4. 피부가 더 밝아지는 느낌이다	98%	비 밝아짐도 증가했다

1인당 100원 이상 구매 시 100% 할인 혜택 (100명 한정, 9.11~11.30)